

# 최근 3년 광주·전남 보행자 사망 11월 '최다'

### 총 268명 중 39명...분기별로는 4분기 86명 가장 많아 교통안전공단, 보행자의 날 맞아 사고 예방 캠페인

최근 3년 광주·전남에서 보행자 사망 사고가 '보행자의 날(11월11일)'이 있는 11월에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동

안 광주·전남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총 268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01명, 2022년 86명, 2023년 81명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로 분류하면 11월 사망자가 39명

(14.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는 10월(28명·10.4%), 1월(27명·10.1%), 9월(26명·9.7%), 5월(25명·9.3%), 7월(24명·9%), 8월(20명·7.5%), 12월(19건·7.1%), 3월(17건·6.3%), 2·6월(각각 15건·5.6%), 4월(13건·4.9%) 순이다. 분기별로는 4분기 사망자가 86명(32.1%)으로 가장 많았고 3분기 70명(26.1%), 1분기 59명(22%), 2분기 53명(19.8%) 순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관

계자는 "해가 짧아지는 겨울철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밝은 옷 입기, 보행자도 손을 들어 운전자와 소통하기, 무단횡단 하지 않기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한국도로공사, 손해보험협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과 이날 목포 동부시장에서 '보행자의 날' 맞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고령 보행자의 무단횡단 경각심 고취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차·만·손(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 교통안전 문화 홍보 ▲교통안전용품(안전지팡이, 물티슈) 제공 ▲무단횡단 금지 및 차·만·손 서약 등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다. 문재업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본부장은 "이번 캠페인이 고령 보

행자의 무단횡단 근절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이므로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9월부터 매월 11일을 보행자의 날로 자체 지정해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9월 공단 본부·운전자 대상, 10월 광주어린이교통공원 어린이 대상)을 전개해 오고 있다. /주석학 기자

## “아파트 분양권 대가 청탁 의혹, 추가 연루자 없어”

### 광산구, 자체 조사 결과 발표...“공동주택 업무 감시체계 강화 등 조치”

소속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광주 광산구가 "추가 연루자는 없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11일 박병규 구청장 주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공무원 A씨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씨는 모 건설사로부터 "분양 가격을 낮추지 말아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지난 2022년 12월 28일부터 다음 해 1월 6일 사이 다른 사람 명의로 모 건설사의 아파트 5세대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5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현재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광산구는 조사 결과 A씨 외 연루된 공직자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청탁 의혹을 받는 아파트가 건설사 신청가격의 90.76~91.16%로 감액 승인됐는데, 이는 최근 5년간 광산구 내 공동주택 분양 승인 중 '최고 하향'이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사실상 '감액 청탁' 사실 자체를 부정한 셈이다. A씨가 타인의 명의로 5세대를 분양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광산구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수사 진행을 통해 다른 내용이 확인될 수 있다"며 "공동주택 관련 업무를 전면 재검토해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전결권자를 상향 조정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광산구가 밝힌 입장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혐의 자체는 광산구가 공개한 것과 비슷하나 추가 입건자 여부와 주장에 대한 것은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육근·안재영 기자

## 광주 패션의 거리 '김성한 선수 조형물' 복구 최근 방망이 또 파손...상인회, 수사 의뢰

광주 북구 용봉동 패션의 거리에 세워진 김성한 전 해태타이거즈 선수 조형물에 새 방망이가 들렸다. <사진> 11일 북구에 따르면 김성한 선수 조형물의 보수를 지난 9월 마쳤다. 보수에는 약 50만원이 투입됐다. 북구는 훼손 방지 차원에서 '조형물 주변에 접촉을 삼가고 사진 촬영만 해달라'는 문구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했다. 이 조형물은 지난 2020년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북구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패션의 거리 홍보대사인 김성한 전 해태타이거즈 선수가 방망이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조성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방망이가 파손돼 북구는 올해 9월 수리를 마쳤으나, 지난

달 23일 방망이가 또다시 부러졌다. 이에 패션의 거리 상인회는 조형물 훼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까지는 방망이가 부러진 당일 이른 오전 시간대에 해당 방망이를 잡고 흔든 취객 2명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공공조형물을 훼손할 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재영 기자

## 4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 60대 총책 구속 111명 송치

전국 각지를 돌며 1만2천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00억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11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60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투자자 모집 등을 하며 총책 A씨의 범행에 가담한 111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 투자 업체 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자 1만2천여명으로부터 약 400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전국 각지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며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안재영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캠페인 광주 북구청과 북부경찰서, 교통문화연수원, 한국재난안전협회, 녹색어머니회 등 7개 유관기관은 11일 오후 전남대 후문 일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김애리 기자

## '진위 논란' 도자기로 임대차 계약 맺은 수집가 '무죄'

### 2015년 6월 고흥군과...6억여원 쟁건 '사기' 등 혐의로 기소

'모조품 도자기'로 고흥군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6억 상당 이익을 쟁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미술품 수집가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미술품 수집가 A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2016년 수사 개시 이후 8년, 2020년 기소 이후 4년여 만이다. 공무원 재직 시절부터 고미술품 등을 수집한 A씨는 2015년 6월 진품인지 불확실한 4천여점의 중국 황실 도자기

들을 고흥군에 장기 임대하기로 하고, 준비 인자로 명목으로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윤봉길 의사의 유묵 등을 10억원에 고흥군에 팔기로 하고 4억원을 먼저 받기도 했으나, 진위 논란이 일자 잔금은 받지 못했다. 수사 기관은 A씨가 모조품 등으로 고흥군과 거래해 6억4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원심은 "A씨의 (일부) 기망행위를 인정하더라도 고흥군의 처분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재영 기자

대법원도 1·2심의 판단이 정당했다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2018년 4월 A씨의 물품을 보관 중인 고흥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다 주전자 형태의 도자기를 깨트렸다. 이에 A씨는 정부와 고흥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방법은 지난 2022년 7월 배상액을 2천만원으로 산정하는 등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A씨는 임시 수장고에 보관된 도자기 수십점이 파손됐으며 정부 또는 고흥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재영 기자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 장인의 기술

오래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로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